

# 소세키와 아쿠타가와와의 텍스트에 나타난 근대교육 비판\*

김난희\*\*  
knh2765@jejunu.ac.kr

##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1 소설 『다이도지 신스케의 반생』 『모리 선생』의 중학교 |
| 2. 소세키의 근대교육비판      | 3.2 「그 시절의 나」의 제국대학 문학수업           |
| 2.1 소설 『도련님』        | 3.3 「문부성 가나철자법 개정안에 대해서」           |
| 2.2 평론 「우견수칙(愚見數則)」 |                                    |
| 3. 아쿠타가와와의 근대교육비판   | 4. 마치며                             |

주제어: 소세키(Soseki), 아쿠타가와(Akutagawa), 교육제도 비판(criticism of the education system), 도련님(Bocchan), 다이도지 신스케의 반생(half life of Daidoji Shinsuke), 문부성(Ministry of Education)

## 1. 들어가며

일본의 메이지시대는 서구의 다양한 제도를 받아들여 부국강병의 초석을 놓고자 혈안이 된 시기이다. 메이지 신정부가 서구열강을 의식하여 추진한 여러 제도 중의 하나가 근대적 학교제도이다. 1872년에 반포된 학제는 입신출세를 위한 학문보급을 이념으로 했다. 대·중·소 3단계의 학구(學區)를 편성, 각 학구에 대학·중학·소학교를 하나씩 설치했다. 이들을 중앙집권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은 문부성이었다.<sup>1)</sup> 이후 1879년의 교육령과 1886년의 소학교령 기타 학교령에 의해 소학교·중학교·사범학교·제국대학 등의 학교체계의 기본이 이루어졌다. 1877년에 문학·이학·법학·의학 4개의 학부로 구성된 일본 최초의 관립대학인 도쿄대학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1886년 제국대학령이 발표되면서 도쿄대학이 제국대학으로 변경된다.<sup>2)</sup> 제국대학설립은 교육의 목적이 국민개인보다는 국가를 위한 것이며, 제국대학이라는 명칭은 국가정

\* 이 논문은 2020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 지원 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교수

1) 平凡社編集部(1991)『日本史事典』, p.176

2) 위의 책, p.473 (연표참조)

책과 직결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점점 강화되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시대배경 하에서 새로운 이념으로 무장된 교육을 받고 사회로 진출한 사람들 중에는 문인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학교교육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남기고 있는데 본고는 그 사례로 소세키와 아쿠타가와를 들고자 한다. 이 두 작가는 근대의 새로운 학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반감을 표하는 글을 남기고 있다. 소세키와 아쿠타가와 두 작가의 문학작품을 보면 공통된 모티프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아쿠타가와가 소세키의 영향을 받은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두 작가의 텍스트는 상호텍스트성<sup>3)</sup>의 관점에서 논할 수 있겠다.

소세키의 『도련님』(1906)은 대표적인 학교소설로서 메이지시대 새롭게 등장한 학교인 중학교를 주요 무대로 한다. 시코쿠에 있는 중학교에 새로 부임한 도쿄출신 신입교사가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에서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해학적으로 그려져 폭소를 자아낸다. 이 작품보다 먼저 쓴 평론 「우견수칙(愚見數則)」(1895)에서 소세키는 근대학제 하에서 변질되어가는 스승과 제자의 위상에 대해 개탄한바 있는데 이것이 『도련님』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음을 본다.

한편 아쿠타가와는 『다이도지 신스케의 반생』(1925)에서 아쿠타가와와 분신으로 보이는 신스케(信輔)의 시선을 통해 자신이 경험한 중학교 생활을 인상비평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 작품 속에 그려진 중학교에 대한 인상은 불쾌감과 감옥의 이미지다. 또 다른 작품 『모리선생』(1919)에서는 제도권 바깥의 음지에서 행해지는 교육현장을 감동적이고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잡지 『개조(改造)』에 실린 평론 「문부성 가나철자법 개정안에 대해서」(1925)에서는 문부성의 일방적인 교육행정의 강압적인 처사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소세키와 아쿠타가와는 스물다섯 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 소세키는 메이지시대에 학업의 전 과정을 마쳤으며 아쿠타가와와 메이지시대와 다이쇼시대 초입에 걸쳐 학업의 전 과정을 마친 작가이다.<sup>4)</sup> 소세키가 메이지 1세대라면 아쿠타가와와 메이지2세대에 해당한다. 메이지 1세대 작가들은 유신과 함께 진척된 국가주의 일변도 속에서 친구교체기의 정체성의 혼돈을 겪으며 살아가야만 했다면, 메이지 2세대는 국가주의가 후퇴하고 개인주의가 정착되어가던 비교적 안정된 시기를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교육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는

3) 상호텍스트성 이론은 기호작자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용어이다. 하나의 문학텍스트가 다른 문학텍스트와 맺고 있는 상호관련성을 말한다. 아쿠타가와와 소세키의 상호텍스트성에 관한 논문으로는 김난희(2012) 「나쓰메 소세키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상호텍스트성과 관련하여」가 있다. 『일본문화연구』41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23-38

4) 소세키는 1890년(메이지23) 9월에 제국대학 영문과에 입학 1893년(메이지26) 7월에 졸업한다. 아쿠타가와와 1913년(다이쇼2년) 9월에 제국대학 영문과에 입학해서 1916년(다이쇼5년) 7월에 졸업한다. 두 작가는 거의 대부분을 메이지시대에 학업을 수행한 셈이다.

점에 주목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소세키와 아쿠타가와와의 텍스트에 관한 선행연구는 무수히 많으나 두 작가의 텍스트를 비교하여 교육비판을 다룬 선행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다만 『도련님』에 나타난 소세키의 교육관을 고찰한 논문<sup>5)</sup>과 메이지시대 학교소설에 대해 논한 선행연구<sup>6)</sup>가 있음을 말해준다. 아쿠타가와와의 경우 선행연구는 교육비판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아쿠타가와가 일고 1학년 재학시절에 있었던 문부성의 학교장 문책사건이 비판적으로 「다이도지 신스케의 반생」의 장면으로 설정되었다고 논한 세키구치 야스요시의 문헌이 있다.<sup>7)</sup>

덧붙여 본고의 목차에 나열된 텍스트의 순서는 창작연도 순에 따르지 않고 작품의 독자대중의 인지도를 고려하여 배열하였음을 말해준다.<sup>8)</sup>

## 2. 소세키의 근대교육비판

### 2.1 소설 『도련님』

소세키의 학교비판을 담고 있는 텍스트로는 『도련님』(1906)과 평론 「우견수칙」(1885)이 있다. 『도련님』은 잘 알려진 학원소설이다. 시골의 한 중학교를 무대로 벌어지는 신참 교사와 학생들 간의 좌충우돌이 전면에 그려져 있는 피카레스크(picaresque)소설<sup>9)</sup>이다. 이 작품 안에는 다양한 주제가 들어 있지만 본고는 근대학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소세키의 관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소세키는 자연의 질서를 역행하는 인위적 장치에 대해

---

5) 유상희(1986) 「『도련님』을 통한 漱石의 교육관연구」 『일어일문학』9집  
6) 김활란(1999) 「明治三十九年の学校小説に関する考察」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関口安義(2004) 『芥川竜之介の歴史認識』 「第 章謀叛論とその影響」, pp.60-66 참조.  
대역죄로 사형선고를 받아 처형된 고토쿠 슈스이(行徳秋水) 등을 옹호하고 정부를 비판한 도쿠토미 로키의 연설「모반론」이 물의를 빚어 문부성으로부터 일고 교장과 변론부장이 견책처분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이 연설에서 로키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소중함을 외친다. 그리고 “모든 새로운 것은 모반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겨 혈기왕성한 학생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8) 논문에서 사용한 소세키의 『도련님』 텍스트는 『나쓰메 소세키전집』 2권, 치쿠마문고(2002)을 사용했으며, 아쿠타가와와의 텍스트는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전집』 (1-8권) 치쿠마문고(2006)을 사용하였다. 인용 문출처는 『전집』으로 표기했다.  
9) 피카레스크 소설은 16세기-17세기 스페인에서 유행한 문학양식이다. 1인칭서술자 시점으로 주인공이 고백하는 형식을 취하는 소설이다. 사회의 부조리나 부패를 고발하고 사회를 비판하는 효과를 낸다. 주인공을 중심으로 많은 사건이 일어난다. (川口喬一 外 編(2000) 『文學批評用語辭典』 研究社出版, pp.218-219)

거부감을 표출해 온 작가이다. 따라서 근대의 학교제도를 인위적인 것 중 하나로 위화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 이 작품 안에는 메이지시대를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희극적 행태가 통렬하게 그려져 있다. 메이지시대라는 과도기의 시류를 잘 타서 출세가도를 달리는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 도태되어 밀려나가는 인간들도 있다. 작품의 주인공인 도련님은 관찰자로 나오지만 보통보다 열등한 면이 있는 주인공으로 설정되어 있다.<sup>10)</sup> 그는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에게 봉변을 당하는가 하면 의리와 신의를 추구하는 고지식한 성정 때문에 세상물정을 모르는 도련님이라고 비웃음을 사기도 한다. 소세키는 주인공 도련님의 시선을 통해 학교란 무엇인가?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자의 자질이란? 수많은 질문을 독자에게 던지고 독자로서 하여금 근원에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한다.

메이지시대는 전근대적 봉건제에서 근대 자본주의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급변하는 과도기이다.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주인공 도련님은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섬인 시코쿠의 중학교에 부임한 것이다. 이러한 설정에는 소세키의 마쓰야마 중학교 교사체험이 투영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주인공은 동료교사들과도 가르치는 학생들과도 소통을 못하고 곁돌게 되면서 신경만 곤두세우게 된다. 그럴 때 그리워지는 사람이 유모 기요(清)이다. 기요는 근대적 교육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지만 자신이 평생 섬겨왔던 집안의 ‘도련님’이라는 한 인간에 대해 무조건적인 신뢰를 지닌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작중 도련님과 유모 기요는 신분과 교육을 초월하여 완벽할 정도로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소세키의 유토피아적 꿈이 창출한 이상적인 인간관계의 모습으로 보인다.

소세키는 2년간의 영국체류의 경험을 계기로 동양의 정신과 서양의 정신의 본질에 대해 근원에서 해부한 작가이다. 소세키가 목도한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물질주의로 치닫고 있었다. 귀국해서 목격한 일본 역시 산업화를 기치로 신흥자본주의의 길을 가고 있었다. 『도련님』에는 다분히 소세키의 영국체험에서 우러나온 사색의 파편들이 녹아 있다고 생각된다. 작품에 나오는 다양한 인간유형은 구질서와 신질서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인물들이다. 신질서와 구질서는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알력이 생기며 부딪치기 마련이다. 소세키의 시선은 이해 타산에 의해 이합 집산하는 신질서에 속한 인물들을 냉소적으로 그리고 있다. 그리고 무사도로 표상되는 구질서에 속한 인물들에게는 향수를 보이고 있다. 신질서에 속한 대표적 인물은 빨간 셔츠와 알랑쇠 마돈나 등이 있다. 구질서에 속한 인물로는 도련님과 고슴도치 끝물호박 기요가 있다. 구질서에 속한 이들은 새로운 시대 즉 근대에 편승해 윤행하는 인물들에 대해 반감을 표하고 저항한다. 이에 대해 근대를 표상하는 부류인 빨간 셔츠 일당은 주인공에게

10) 소세키 작품의 주인공은 고뇌하는 지식인이 많이 등장한다. 이런 점에서 『도련님』의 주인공은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미숙하며 순진하다고 폄하한다. 다음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화이다.

“자네는 말이야, 실례를 무릅쓰고 하는 말이지만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해서 교사경험은 처음이지. 하지만 학교라는 것은 상당히 정실(情實)이 있어서 그렇게 학생처럼 담백하게 살 수 없어.”

“담백하게 살 수 없다면 어떤 식으로 사는 겁니까?”

“글쎄 자네는 그렇게 솔직하니까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야...”

(중략)

“그러니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이용당하는 일이 생기는 거지.”

“정직하기만 하다면 누가 이용을 하든 두렵지 않습니다.” (『전집』2권, p.304)

위의 대화는 처세에 능한 교감 빨간 셔츠와 이제야 막 학교를 졸업해 사회에 진출한 청년교사 간의 간극을 보여주는 대화이다. 근대는 순수와 정직이라는 가치가 퇴색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련님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곳은 교직사회이다. 도련님은 학교라는 환경을 둘러싼 사회에서 만나게 된 인간들에게 환멸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학교란 무엇인가? 교육의 본질은 무엇인가? 반문한다.

인간이 인간에게 염증을 느낄 때 마음에 위안을 주는 것은 자연이다. 자연에서 위안을 받는 것 또한 전근대적 정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인은 바쁘게 돌아가는 근대 특유의 시공간에 매몰된 나머지 자신을 성찰하거나 자연을 음미하는 여유조차 지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대를 잘 헤엄쳐 나가는 속물들은 자연의 참맛을 느끼지 못하고 표피에 머물 뿐이다. 작가는 단순하고 정직한 영혼만이 자연의 편에 서 있으며 자연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고 강변하는 듯하다. 속물들은 동일한 자연을 대하면서도 자연을 그 자체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현학적이 된다. 『도련님』에 나오는 빨간 셔츠 일당은 자신의 학식을 과시하고자 하는 허위의식에 찬 인물들로 근대에 출현한 새로운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6장」에 나오는 대목이다.

빨간 셔츠는 계속 바라보며 좋은 경치라고 말한다. 알랑쇠는 절경입니다. 라고 말한다. 절경인지 어쩐지는 알 수 없으나 좋은 기분임에는 틀림없다. 광활한 바다 위에서 바닷바람을 맞는 것은 기분이 좋다고 느꼈다. 매우 시장하다. “저 소나무를 보게나. 줄기가 똑바르고 위가 우산처럼 펼쳐진 모습이 마치 터너의 그림에 나올법해.”라고 빨간 셔츠가 알랑쇠에게 말하자 알랑쇠는 “정말로 터너입니다. 참으로 저 굽어진 정도하며 대단합니다. 터너를 꼭 빼닮았습니다.”라고 득의양양한 표정이다. 터너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지만 묻지 않아도 불편은 없으므로 잠자코 있었다.

(「6장」, p.296)

도련님은 미술교사인 알랑쇠의 권유를 받아 먼 바다낚시에 동행했다. 초가을의 청명한 날씨 속에 상쾌한 바다 공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모처럼 유쾌한 기분을 만끽한다. 그러나 함께 온 빨간 셔츠와 알랑쇠가 주고받는 대화가 거슬린다. 그들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이는 체하고 과시하기 위해 현학적인 언사를 동원하여 자연을 평가하고 있다. 교감은 다른 교사들과 달리 대학을 졸업한 문학사이다. 그래서 다른 동료교사 보다 월급도 많이 받으며 늘『제국문학』<sup>11)</sup>이라는 잡지를 들고 다니는 것으로 나온다. 그 잡지 안에는 가타카나로 된 외래어가 많이 나온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해외의 문학과 예술이 소개되는 교양잡지임을 암시하고 있다. 미술교사인 알랑쇠와 문학사인 빨간 셔츠는 풍경화가 터너<sup>12)</sup>의 그림을 화제로 삼아 서로 소통할 수 있으나 물리학도인 주인공은 대화에서 소외된다. 도련님이 습득한 지식과 가치관은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위화감이 생긴다. 도련님은 현지의 뱃사공이 들려주는 섬에 대한 소박한 설명을 들으며 바다의 감촉과 아오시마(青嶋)라는 무인도를 느낀다. 자연을 느끼는데 현란한 어휘가 동원되고 지식이 개입된다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터너의 그림에 나오는 풍경 같다면 호들갑떠는 빨간 셔츠와 그의 말에 아첨하듯 동조하며 터너 섬이라는 이름까지 붙이는 알랑쇠에게 역겨움을 느낀다. 그래서 터너가 무엇인지 몰라도 자연을 느끼는 데는 전혀 불편하지 않으므로 터너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았으며 아오시마 즉 파란 섬으로 족하다고 혼잣말을 내뱉는다.

『도련님』에는 이처럼 근대의 학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서는 지식이 왜곡되고 있음이 지적하고 있다. 과거의 교육은 인성함양과 덕육교육을 중시했다면, 근대의 교육은 현학적이며 그 지식을 이용한 잔재주와 기만술을 가르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소세키가 바라보는 근대교육은 인간의 심성을 교양시키려는 커녕 인간본연의 자연스러움이라 할 수 있는 순수함을 퇴색시킨다는 관점이다. 교사들은 술수를 전수하고 학생들은 이를 배워서 사회에 나가서 활용하기 때문에 사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이는 소세키가 바라본 메이지시대 근대교육의 실상이다. 메이지시대의 근대교육은 부국강병을 지향하고자 초조해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국책교육이므로 작위적일 수밖에 없다. 메이지신정부가 추진한 근대교육은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행복추구라는 가치는 부차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제도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인간의 품성도야 보다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목들을 양성하는 공장과 같은 기능을 했다. 따라서 실용주의를 표방한

11) 『제국문학(帝國文學)』은 1895년 1월에 창간된 문예잡지이다. 우에다 반넨(上田万年) 하가 야이치(芳賀矢一) 등이 발기했으며 당시 동경제대 문과대학 관계자들이 조직한 제국문학회의 기관지이다. 동서양의 문학·사학·철학·논설 등을 소개했다.(1920년 폐간).

12) 윌리엄 터너(William Turner: 1775-1851)는 영국의 수채화가로 풍경화에 능했다. 소세키는 런던유향 중에 테이트 미술관(Tate Gallery)에 들러 터너의 그림을 관람했다. 소세키가 자주 언급하는 화가이다.

메커니즘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지식과 권력은 결탁하기 쉽다. 작중의 교감 빨간 셔츠는 중학교 교사로서는 당시 최고학력이라 할 수 있는 문학사출신이며 그 덕택에 교감이라는 관리자의 위상에 오른 인물이다. 작품 속의 중학생들은 신입교사를 골탕 먹이기 위해 짓궂은 질문을 하곤 하는데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배후에서 조종하는 빨간 셔츠 세력이 있다. 실제 교사와 학생들이 결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들을 가르치는 곳이 학교라면 학교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학교 교육에 대해 근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작가는 독자를 향해 말한다. 이것이 소세키가 체감한 근대의 교육현장이다. 다시 말해 학문의 본질이 실용으로서의 학문, 도구로서의 학문이 될 때 학문은 타락한다는 것이 소세키의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도대체 중학교에는 왜 들어온 건가. 학교에 들어가 거짓말이나 하고 속이고 뒤에서 쑥쑥덕 건방진 못된 짓을 하고는 거만한 얼굴로 졸업하면 교육을 받은 것처럼 착각한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 나부랭이다. (「4장」, p.288)

위의 글은 도련님이 처음으로 숙직하는 날 겪은 ‘메뚜기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학생들은 메뚜기를 도련님의 이부자리에 넣어 한잠도 못 자게 만든다. 도련님이 학생들을 추궁하자 끝까지 안했다고 버틴다. 도련님은 학생들이 담백하지도 않고 어른보다도 심성이 뒤틀려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근대교육의 현장이라면 전통적 교육보다 저급한 퇴보된 개념의 교육인 것이다. 맹목적인 서구추종의 결과는 종전의 더 좋은 교육을 버리고 하등한 가치를 수용하는 것과 다름없다. 빨간 셔츠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들은 신질서를 표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고슴도치·끝물호박·도련님은 구질서를 표상하는 교사들이다. 구질서에 속한 인물들은 시류에 역행하는 인물들이기에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져야 하는 운명에 처해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은 작품에서 몰락 사족(士族)의 후예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인물 설정에서 사라져 가는 가치들에 대한 소세키의 향수를 엿볼 수 있다.

작품은 과도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좌충우돌하는 해프닝으로 그려내고, 권선징악의 형식으로 표현되었으나 소세키 또한 새로운 문명의 도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빨간 셔츠·알랑쇠·마돈나 등은 실리를 우선시하는 인물유형이다. 실리를 위해서라면 의리와 체면, 도의 같은 것은 초개와 같이 버릴 수 있다. 이들은 근대에 새롭게 출현한 인물 유형이다. 끝물호박은 비록 몰락했지만 사족의 자제인 만큼 성품은 운순하고 강직하나 무기력해서 현실을 타개해 나갈 만큼의 기개가 없는 인물이다. 그래서 약혼녀인 마돈나를 교감인 빨간 셔츠에게 빼앗기고 고향땅을 떠나 멀리 규슈 미야자키 오지(奥地)로 좌천당하는 운명에 처한다.

## 2.2 평론 「우견수칙(愚見數則)」

평론 「우견수칙」은 소설 『도련님』이 나오기 10년 전의 글이다.<sup>13)</sup> 소세키는 1895년 4월 에히메 심상중학교(나중의 마쓰야마 중학)에 부임하여 1년이 채 안된 12월에 상경한다. 소세키가 마쓰야마를 떠나게 되자 학교 측에서 학교잡지에 실을 글을 써달라고 의뢰를 한다. 그래서 급하게 쓴 글임을 밝힌다.<sup>14)</sup> 여기서 피력한 내용이 후일의 소설 『도련님』에 상당부분 투영되어 있어서 흥미롭다. 이 평론에서 소세키는 옛날의 서생과 요즘의 서생의 위상을 비교하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얼마나 변질되었는지를 개탄하고 있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교육자는 스승으로서의 권위와 체통을 잃어버리고 마치 여관의 주인이나 지배인처럼 손님의 눈치나 살피는 처지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학생 또한 스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짐을 싸서 떠나면 그만이어서 근대의 사제관계는 비정하고 삭막한 관계라는 것을 평론의 맨 앞부분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옛날의 학생은 공부를 위해 고향을 떠나 여기저기 편력하며 이 사람이라면 하고 생각되는 스승 밑에 정착한다. 그래서 스승을 공경하는 것이 부형(父兄)보다 더했다. 스승도 제자를 대하는 마음이 친자식 같았다. 이와 같지 않으면 진정한 교육을 할 수 없다.

지금의 학생은 학교를 여인숙처럼 생각한다. 돈을 지불해서 잠시 머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싫증이 나면 곧 숙소를 옮긴다. 이러한 학생을 대하는 교장은 여인숙 주인과 같고 교사는 지배인과 종업원이다. 주인인 교장조차 때로는 손님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되니, 하물며 지배인과 종업원은 말해 무엇 하랴. 훈도는커녕 해고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생각할 정도이다. 학생들이 거만해지고 교원의 지위가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漱石文明論集』「愚見數則」, p.286)

위의 글은 메이지시대 새로운 학제 하의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관계를 규정한 대목이다. 소세키의 눈에는 근대의 교육이 이전 도쿠가와 시대의 교육 보다 열등하게 비쳐지고 있다. 여기서 소세키는 교육의 본질에 대해 근원에서 묻고 있는데, 사제지간은 상업적 잣대로 들어

13) 1895년 11월25일 에히메 심상중학교의 교지 『보혜회잡지(保惠會雜誌)』에 실린 글이다.

14) 소세키는 이 평론을 시작하기 전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을 머리말에 따로 쓰고 있다. “학교의 임원이 와서 뭔가 논설을 써달라고 한다. 나는 요즘 머리가 텅 비어버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하지만 꼭 써달라고 하니 할 수 없이 뭔가를 쓰겠다. 그러나 길치레 말은 싫어한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또 생각나는 것을 그대로 써내려가기 때문에 항목별이어서 조금도 재미가 없을 것이다. 다만 문장이란 것으로 세공하는 거 같아서 늘리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그 대신 알맹이는 덜할 것임을 알아두었으면 한다. (『愚見數則』『漱石文明論集』岩波書店, pp.286-293)

델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끌리는 것은 인품과 덕성의 문제이지 사회적 지위나 금전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상호간의 신뢰와 존경을 토대로 교육은 성립된다. 그런데 근대라는 문명개화시대는 모든 것이 화폐적 교환가치로 평가되기 때문에 화폐로 치환할 수 없는 교육자의 내면적 자질 등은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있음을 개탄하고 있다. 소세키는 자신 또한 호구지책을 위해 교사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자조적으로 말한다.

나는 교육자에 적합하지 않다. 교육자의 자격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부적합한 자가 입에 풀칠하기 위해 가장 얻기 쉬운 것이 교사의 지위였다. 이는 지금의 일본에 진정한 교육자가 없음을 말해준다. 동시에 지금의 학생들은 엉터리 교육자라도 적당히 얼버무리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중략) 훌륭한 교육자를 양성하여 이들 엉터리 교사를 추방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훌륭한 학생이 되어 이 같은 선생들은 도저히 스승이 될 수 없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이다. 나와 같은 사람이 교육현장에서 축출될 때 일본의 교육이 융성해질 때라고 여겨라. (앞의 책, p.287)

소세키는 잘 알려진 대로 제국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여러 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경력이 있다. 에히메 심상중학교를 비롯해 구마모토 고등학교, 영국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에는 일고강사와 동경제대 영문과 강사를 역임했다. 학창시절에도 생계를 위해 학생을 가르친 일이 있다. 그러나 소세키는 교사라는 직업을 자신의 천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상하 위계질서가 분명한 조직생활에 적응하기에는 까다로운 기질을 타고났다는 것을 그 자신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출퇴근 및 사회적 인간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신문소설 기자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세키의 이력으로 유추해 볼 때 자신이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근거 없는 겉치레 말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교사가 반드시 학생보다 훌륭하지는 않다. 때로는 틀린 것을 가르치는 일이 없다고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학생은 무턱대고 교사가 말하는 것을 추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중략) 따를 수 없는 것에는 항변해야 마땅하다. (앞의 책, p.287)

위의 글은 학생도 공부를 해야 엉터리 교육자를 판별해낼 수 있으며 그런 교사를 거부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메이지시대에 들어서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진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자질이 천차만별이었음을 가늠하게 하는 대목이다. 학생의 자질이 우수해야만 스승이 훌륭한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먼학에 힘쓰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3. 아쿠타가와와 근대교육비판

#### 3.1 소설 『다이도지 신스케의 반생』 『모리 선생님』의 중학교

『다이도지 신스케의 반생』은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된 중편소설이다.<sup>15)</sup> 그 중 네 번째 장이 「학교」이다. 여기서 신스케는 자신이 다녔던 중학교를 “구속이 많은 중학교”로 기억하며 불쾌를 토로한다. 그는 학교에서 “죄수와 같은 경험을 했으며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말한다. 그리고 교사들의 편협성에 대해서 극도로 혐오하는 대목이 나온다. 여기서 작가는 ‘회색(灰色)’을 주요 심상으로 사용한다. 그것은 학교의 이미지를 자유와 희망이 아닌 억압과 감옥의 이미지로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학교 또한 신스케한테는 어두운 기억만 남기고 있다. 그는 대학 재학 중 노트도 안 지닌 채 출석한 두 세 강의를 제외하고는 어떤 학교수업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몇 개의 학교를 통과한 것은 겨우 빈곤을 탈출하기 위한 단 하나의 구명대였다. 하지만 신스케는 중학시절에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중학을 졸업할 무렵부터 빈곤의 위협은 어두운 하늘처럼 신스케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대학이나 고등학교에 다닐 때 몇 번씩이나 학교를 그만 둘 계획을 세웠었다.

(『전집』5권 「다이도지 신스케의 반생」 4. 「학교」, p.429)

위에서 언급되고 있는 학교는 메이지시대의 중학교이다. 메이지 시대 새롭게 대두된 교육이념은 도덕적 완성을 목표로 하는 전인교육에서 이미 일탈해 있음을 말한다. 신스케가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몇 개의 과정을 통과한 이유는 교육이야말로 빈곤을 탈출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몇 번씩이나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다가도 포기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한다. 대다수가 가난했던 시절 가난에서 벗어나고 입신양명하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공부해야 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근대의 교육이 실용적인

15) 『大導師信輔の半生』는 잡지 『中央公論』(1925.1.1.)에 발표된 작품으로 1. 「本所」 2. 「牛乳」 3. 「貧困」 4. 「学校」 5. 「本」 6. 「友だち」로 되어 있다. 작품 말미에 「부기(附記)」를 달고 “이 소설은 이 보다 서너 배 이상 쓸 생각이었다. 『大導師信輔の半生』의 제1편으로 생각해 준다면 다행이겠다.”라고 쓰고 있다. 부제는 「어느 정신적 풍경화(或精神的風景画)」이다.

지식을 습득하여 안정된 직업을 찾는 공리주의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것은 전시대의 교육이념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며, 교육의 기능이 호구지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한다. 이는 소세키의 관점을 빌리자면 교육의 세속화이며 타락인 것이다.

얼마나 운동장의 포플라 나무는 우울하게 우거져 있었던가. 신스케는 거기서 서양 역사의 날짜 들을, 실험도 하지 않는 화학방정식을, 구미(歐美)의 한 도시의 인구수를 쓸데없는 작은 지식들을 배웠다. (앞의 책 4. 「학교」, pp.429-430)

위의 글은 당시 학교에서 행해지던 교육 방법이 암기위주의 주입식 교육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실험과목의 경우도 실험으로 이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의 결과 값을 무조건 외우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조리한 수업현장을 아쿠타가와는 신스케의 입을 빌려 고발하고 있다. 실험도구도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이해도 할 수 없는 것을 외워야 하는 학생들의 두뇌는 혹사당하고 결국 수업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된다. 이런 수업은 창의적인 학생들에게는 지루한 나머지 고역이었을 거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 학교수업에 불만이 많은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그 돌파구를 다른데서 찾으려 했을 것이다. 『다이도지 신스케의 반생』에 나오는 「학교」 「독서」 「친구」를 보면 아쿠타가와가 경험한 학교교육은 실망 그 자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조숙한 청소년들은 독서를 통해 공허를 매웠으며 암담한 현실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쿠타가와와의 텍스트에 나오는 제도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입신출세를 위해 살벌한 경쟁을 하는 곳이다. 따라서 우정과 관용 양보 같은 덕목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이를 의식한 듯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보여주는 작품이 단편 『모리선생』이다. 이 작품은 중학교 입시촉탁으로 영어를 담당하게 된 모리선생에 대한 이야기다. 모리선생은 갑작스럽게 명문 중학교에서 우수한 중학생들을 가르치게 된 보통교사들 보다 못한 입시교사이다. 그는 영어발음도 어색하고 번역도 매끄럽지 못한 탓에 학생들에게 조롱을 받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럭저럭 10년 전 일로서 내가 부립중학 3학년생일 때, 우리 학년의 영어를 담당하던 아다치 선생님이라는 젊은 교사가 급성폐렴으로 겨울방학 때 작고했다. 그것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적당한 후임을 물색할 여유가 없었던지 궁여지책으로 우리학교는 당시 어느 사립중학에서 영어교사로 있던 모리 선생이라는 노인에게 지금까지 아다치 선생이 담당하던 수업을 일시 촉탁했다. (중략) ‘지금부터 내가 제군에게 초이스 리더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발음이 매우 이상한데다 번역을 하려고 하면 일본인이라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일본어 단어를 몰랐다. 혹은 알고 있어도 당장 생각이 안 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겨우 한 줄을 번역하는데도 ‘로빈슨 크루소는 드디어

기르기로 했습니다. 무엇을 기르기로 했는가 하면, 그거, 묘한 짐승인데—동물원에 많이 있지 뭐라고 하더라—연극을 잘하는데—아, 제군들 알고 있는가. 그거, 얼굴이 빨간—뭐 원숭이? 그래 그래, 원숭이야. 그 원숭이를 기르기로 했습니다.’ (『전집』2권 「모리선생(森先生)」, pp.338-342)

위의 글은 입시로 촉탁을 받아 영어를 담당하게 된 모리선생이 진행하는 영어수업 장면이다. 당시 부립중학교와 사립학교는 위상이 달랐다. 도쿄 부립중학교를 졸업하면 명문 고등학교인 일고로 진학하고 그 다음은 도쿄제국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수순이었으니까 소위 엘리트 코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부립중학에서는 유능한 교사들이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했다. 그런데 젊고 유능한 영어교사가 갑자기 타계한 것이다. 급하게 교사를 구하다보니 나이도 많고 평범한 사립학교의 영어교사를 궁여지책으로 고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모리선생은 열심히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차갑다. 하지만 아쿠타가와는 모리선생이라는 인물한테 페이스스와 함께 인간적 존경을 담아내고 있다. 위의 교육현장은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치열하게 입시전쟁을 치루는 근대의 학교교실이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은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각박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도록 강요받는다. 그래서 학생들은 실력이 없는 무능한 교사에 대해서 불만을 표명하고 교사를 교체해 주기를 요청한다. 여기에는 실용주의라는 척도로만 재단되고 있을 뿐 모리선생이 지닌 교사로서의 열의와 인간미는 폄하된다. 제도권의 교육은 비정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모리 선생은 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 거듭 말한다. 계약된 고용기간이 만료된 모리 선생은 학교를 그만두었다. 천성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그는 이후에도 기회만 되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리선생은 먼 훗날 어느 카페에서 종업원들을 모아놓고 무보수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지난 날 모리선생을 조롱하던 제자 중의 한 명이었다.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대학을 졸업한 시기에 이를 찰나적으로 목격한다는 구성이다.

동일한 모리선생이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다닐 여건이 되지 않는 소년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존재로 표상되고 있다. 카페의 종업원들은 구석에 있는 테이블에 웅기종기 모여 앉아 진지한 모습으로 모리선생의 수업을 듣고 있다. 온종일 고된 일을 했을 그들은 일을 마친 후 지친 몸을 이끌고 공부를 하는 열의를 보인다. 이 또한 공부를 해야 가난을 벗어날 수 있으며 미래가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리선생의 어색한 영어발음을 그들은 진지하게 따라 읽는다. 부립중학교의 영어수업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다. 부립중학교의 자긍심이 높은 학생들에게는 수준이하의 입시교사에 불과했는데 동일한 모리선생이 다른 상황에서 존경스런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이다. 가난 때문에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어린 나이에 돈을 벌어야 하는 소년들한테 모리선생은 희망의 동아줄이 되고

있다. 여기서 아쿠타가와와는 근대 학교교육의 명과 암을 시니컬하게 포착하고 있음을 본다.

### 3.2 「그 시절의 나」의 제국대학의 문학수업

아쿠타가와와의 학교 체험을 엿볼 수 있는 글은 『다이도지 신스케의 반생』 『모리 선생』외에도 「그 시절의 나」를 들 수 있다. 「그 시절의 나」는 아쿠타가와가 제국대학을 다닐 당시 느꼈던 문과수업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 있다. 아쿠타가와와는 1913년 9월에 영문학과에 입학하여 1916년 7월에 졸업한다. 당시 동경제대 영문과에는 로렌스와 스유프트 두 사람의 외국인교수와 몇 명의 일본인교수가 수업을 담당했다. 아쿠타가와와는 대학수업에 매력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대신 독서를 통해 공허감을 채운 것으로 보인다. 학교공부 보다는 동경대 교우잡지 『신사조(新思潮)』와 『제국문학(帝國文學)』에 번역과 창작을 발표하는 등 문학활동에 더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다. 그래서 동급생들과 함께 대학수업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한다. 특히 로렌스 교수의 수업은 건달 수 없을 정도였음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강의가 재미없는 것으로는 정평이 나 있었다. 그날 아침은 특히 더 재미없었다. 처음부터 설  
새 없이 줄거리만 들려주었다. 그것도 일일이 1막 1장이라는 식으로 진행하므로 그 지루함은  
더했다. 나는 무슨 인과로 대학 따위에 들어왔는가 하는 생각이 그치지 않았다. 이런 비범한 강의를  
들어야만 하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였다. (중략) 스팀 때문에 점점 졸려서 잠을 잤다.

(『전집』2권 「그 시절의 나」, p.378)

위의 강의는 로렌스 교수의 강의를 말하는데, 그는 동경제대 영문과 주임교수로 셰익스피어의 『맥베드』를 강의한 외국인교수이다.<sup>16)</sup> 그는 문학에 조예가 없어서 학생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단조롭고 깊이가 없는 강의를 했다. 일본의 수재들이 다니는 동경제국대학의 수업에서 문학작품의 스토리를 알려주는 것은 마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것과 다름없어 불만을 살만하다. 고전작품의 세계란 다채로워서 문화적 역사적 문맥이 있으며 심미적 요소도 빼놓을 수 없다. 행간 속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여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정신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아쿠타가와와는 외국인교수보다는 일본인교수인 오쓰카 야스지(大塚保治) 박사의 미학개론 강의를 흥미롭게 들었다고 말한다. 여기서 전문성을 무시한 값싼 급여로 초빙한 외국인교수의 강의는 학생들을 실망시키고 실력을 갖춘 일본인교수의 강의는 만족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sup>17)</sup>

16) 菊地弘(2001)『芥川龍之介事典』明治書院, pp.539-540

도대체 대학의 순수문학과라는 것은 매우 괴이하고 시시한 학과이다. 저렇게 국·한·영·불·국(國漢英佛獨)의 문학과가 있지만 모두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중략) 과연 연구하고 있는 것은 각국의 문학이겠지. (앞의 책, p.392)

위에서 보듯이 동경제대 문과 커리큘럼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문학을 연구하도록 다양한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수업의 질은 낮아서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음을 말해 준다.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것은 보다 심층적인 문학 연구임을 알 수 있다. 순수문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교수가 문학 강의를 해야 한다. 현실은 그렇지 못했기에 학생들은 수준 높은 강의를 듣고 싶다는 지적인 갈증을 불만으로 토로하고 있음을 본다. 일본지성의 산실인 동경제국대학에서의 문학수업도 자질을 못 갖춘 외국인 교수를 고용하여 오로지 외국어를 따라 말하고 익히는 실용성 위주의 수업의 행태이었음을 알 수 있다.

### 3.3 「문부성의 가나철자법 개정안에 대해서」

아쿠타가와와는 문부성의 행정에 대해서도 성토했고 있다. 그것은 1924년 문부성이 ‘임시국어조사회(臨時國語調査會)’를 결성하여 ‘가나 철자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문부성은 ‘국어교육’과 ‘국운(國運)’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문자는 부수적이며 음성은 중심이라는 입장에서 발음에 맞는 철자법을 쓸 것을 주장한다. ‘임시국어조사회’의 초대(初代)회장은 모리 오가이였으며 이어서 우에다 가즈토시(上田萬年)가 회장이 된다. ‘국어조사회’는 주로 상용한자표(常用漢字表)와 가나철자법 개정안 그리고 자체정리안(字體整理案) 등을 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sup>18)</sup> 아쿠타가와와는 문부성이 주도하는 모든 결정이 편의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대해 격분하고 반론을 펴고 있다.

가나철자법 개정안은—번거로움을 줄이자는 것이 그 이유인 것 같다. 하지만 번거로움을 줄이는 것이 곧 편리하다는 것은 위험한 사상이다. 천하에 폭력보다 쉽게 번거로움을 줄이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sup>19)</sup> (『전집』7권, p.128)

17) 1914년 11월 14일 하라 겐이치로(原善一郎) 앞으로 보낸 편지에, 아쿠타가와와는 자신이 존경하는 교육자로 오쓰카(大塚)와 하타노(秦野)선생을 들고 있다. 하타노는 그리스 철학을 강의했다.

18) イ・ヨンスク『國語という思想』岩波書店, pp.96-160

19) 「개조(改造)」(1925.3.1.)에 발표한 평론「문부성 가나철자법 개정안에 대해서(文部省假名遣改正案について)」의 내용이다.

편의주의 역시 합리주의를 표방한 근대문명의 산물이다. 당시 서양의 언어 특히 영어와 비교해 볼 때 일본의 문자생활은 복잡했다. 이를 이유로 한자폐지론자<sup>20)</sup>들도 나왔으며 심지어는 일본어를 폐지하고 영어를 국어로 하자는 정치가<sup>21)</sup>도 있을 정도였다. 이에 비하면 가나 철자법 개정안 정도는 가벼운 사안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쿠타가와는 한 민족이 수 천년동안 사용한 문자의 전통을 편의주의라는 경박한 논리로 개정한다는 것에 대해 통탄한다. 표면적으로는 문맹을 없애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해주고자 복잡한 문자생활을 개정하는 것이 취지인 것처럼 보인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국가가 국민을 사용하기 쉬운 도구로 활용하려는 숨은 책략도 있다. 메이지 신정부로서는 군대와 교육은 국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다. 당시의 복잡한 문자체계로는 군대에서 군인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할 때 비효율적이다. 또 문자해독이 가능해야 군인이 될 수 있다. 간편한 문자 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당국자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국어’라는 용어 또한 국가주의의 산물이다. 문부성은 국운이라는 거창한 담론과 전체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교묘히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고 있음을 아쿠타가와는 간파하고 있음을 본다.

#### 4. 마치며

지금까지 소세키와 아쿠타가와 두 작가의 텍스트에 나타난 메이지시대의 교육비판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쿠타가와는 소세키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쿠타가와와의 텍스트 안에서 소세키적인 모티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본고는 한 세대라는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육에 대한 비판은 동일하다는 것에 주목했다.

메이지 1세대작가인 소세키의 경우는 신질서와 구질서가 길항하며 빚어내는 혼돈을 온몸으로 겪은 세대로서의 목소리가 들어 있다. 그만큼 소세키의 학교교육 비판은 문명비평적 요소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근대 학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실용주의 교육에 대해 『도련님』과 『우견수칙』에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교육의 목표가 인간의 품성을 높이는 덕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입신양명을 위한 출세의 도구라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20) 마에지마 히소카(前島密)가 「漢字御廢止之議」에서 주장한 한자폐지론은 국어국자(國語國字)문제의 최대 쟁점이 되었다.

21) 모리 아리노리(森有礼)는 변리공사(辨理公使)로 아메리카 합중국 체제 중에 일본 국어가 결합이 많고 교육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국어를 전폐하여 영어를 국어로 하자는 의견을 내놓아 구미학자들의 견해를 구한 바가 있다.

소세키의 교육비판은 소세키 자신이 경험한 교사체험에서 나온 욕성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 세대 뒤에 태어난 아쿠타가와외의 경우는 교사 소세키와는 달리 학생이라는 입지에서 경험한 학교생활을 회상하며 비판하고 있다. 아쿠타가와외의 교육제도비판을 볼 수 있는 텍스트로 『다이도지 신스케의 반생』(1925) 『모리 선생』(1919) 「그 시절의 나」(1919)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메이지시대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되는 교육은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교과교육 행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로서는 매우 불만스러웠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학생들과 감수성과 정서를 교감하지 못하는 둔감한 교사에 대해 극도의 불신과 혐오를 토로하고 있음을 보았다.

본고는 두 작가가 한 세대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 제도권에서 행해진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의 소리는 대동소이하다는 점에 주목했는데, 이는 메이지신정부가 지향한 교육의 목표가 국가를 위한 인재양성이라는 실용주의 교육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메이지시대 학교교육의 이념은 공리주의 교육이었다. 이는 학교교육을 통해 입신양명하여 관료 또는 국가의 재목이 되는 것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현장은 경쟁위주의 살벌한 전쟁터처럼 묘사되어 있다고 보았다. 메이지 이후 근대사회의 제도권에서 행해지는 모든 교육은 결국 국가를 위한 인재양성이라는 것으로 수렴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문부성의 교육행정 또한 같은 방침 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쿠타가와외의 비판의 과녁이 되고 있음을 고찰했다.

소세키와 아쿠타가와외 두 작가 모두 근대 제도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너무 각박하며, 교육이 입신출세의 수단이 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다만 아쿠타가와외의 텍스트에는 문부성의 여러 행정에 이르기까지 비판의 시야를 확장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고 하겠다.

### 【參考文獻】

- 芥川竜之介(2006)『芥川竜之介全集』(1-8)ちくま文庫  
 イ・ヨンスク『國語という思想』岩波書店, pp.96-160  
 川口喬一 外 編(2000)『文學批評用語辭典』研究社出版, pp.218-219  
 菊地弘(2001)『芥川竜之介事典』明治書院, pp.539-540  
 関口安義(2007)『芥川竜之介』岩波新書, pp.25-32  
 \_\_\_\_\_(2004)『芥川竜之介の歴史認識』, pp.60-66  
 夏目漱石(2002)『夏目漱石全集』(2)ちくま文庫, pp.251-398

平凡社編輯會(1981)『日本史事典』平凡社, p.145, p.473  
三谷栄一 編(1987)『日本文学史事典』有精堂, p.214  
三好行雄 編(1999)『夏目漱石事典』學燈社, p.120, pp.250-251  
\_\_\_\_\_ 編(1987)『漱石文明論集』岩波書店, pp.286-293  
김난희(2019)『일본근대작가 작품론』지식과 교양, pp.107-124  
\_\_\_\_\_ (2012)「나쓰메소세키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상호텍스트성과 관련하여」『일본문화연구』41집, 동아시  
아일본학회, pp.23-38  
\_\_\_\_\_ (2003)『아쿠타가와 류노스케문학의 이해』(주)학술정보, p.212  
유상희(1986)『『도련님』을 통한 漱石의 교육관연구』『일어일문학』9집

---

논문투고일 : 2020년 09월 28일  
심사개시일 : 2020년 10월 17일  
1차 수정일 : 2020년 11월 06일  
2차 수정일 : 2020년 11월 13일  
게재확정일 : 2020년 11월 17일

---

---

**<要旨>**


---

## 소세키와 아쿠타가와와의 텍스트에 나타난 근대교육 비판

김난희

본고는 소세키와 아쿠타가와 두 작가의 텍스트에 나타난 메이지시대의 교육비판에 대해 살펴본 논문이다. 두 사람은 한 세대라는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육에 대한 비판은 동일하다는데 주목했다.

메이지 1세대작가인 소세키의 학교교육 비판은 문명비평적 요소가 강하다. 그는 교사체험을 통해 목도한 실용주의 교육에 대해 『도련님』과 「우견수칙」에서 신랄하게 비판한다. 특히 교육의 목표가 인격보다는 입신양명을 위한 출세의 도구라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었다.

한 세대 뒤에 태어난 아쿠타가와와의 경우는 교사체험을 한 소세키와 달리 학생의 입장에서 경험한 학교생활을 회상하며 비판하고 있다. 메이지시대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되는 교육은 형식적인 교과학습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은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이 컸다. 특히 학생들과 정서적 교감을 하지 못하는 둔감한 교사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토로하고 있음을 보였다.

두 사람의 불만이 동질인 것은 메이지신정부가 지향한 국가를 위한 인재양성이라는 실용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메이지시대 학교교육의 이념은 공리주의 교육이었다. 이는 학교교육을 통해 입신양명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교육현장은 비정하게 묘사되었음을 고찰했다.

## Soseki and Akutagawa's Criticism of Modern Education

*Kim, Nan-Hee*

This paper is a study of the educational criticism of Soseki and Akutagawa.

I noted that the criticism of education was the same, despite the difference of a generation. Soseki is first-generation Meiji writer, has strong elements of criticism of civilization. He harshly criticizes pragmatism education under the modern school system in the "Bochang" and "Guken Susoku". In particular, he was criticizing that the goal of education was a tool for advancement rather than personality.

In the case of Akutagawa, who was born a generation later, he recalls and criticizes his school life on a personal level, unlike Soseki.

It can be seen that education in most schools in the Meiji era was superficial. Sensitive students were very dissatisfied with school education, especially seeing them expressing distrust and disgust at the dull teacher who could not communicate with the students.

The two people's complaints are the same because the Meiji government's goal is to foster talent for the nation, which is pragmatism. The ideology of school education in the Meiji era was utilitarian education. This led to a rise and fall through school education to become a bureaucrat.

Therefore, it considered that the educational site was described in an unorthodox way.